

“대한민국 대표 도시 동구 완성”

AI 중심 도시 대전환...일자리 창출 등 성장동력 확보

동구청장 임택

3선에 도전해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임택 광주 동구청장 당선인이 “동구가 광주의 중심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임택 당선인은 3일 소감문을 통해 “주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한 표 한 표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민 여러분께서 지난 8년의 성과를 인정해 주면서 동시에 앞으로 더 큰 변화와 더 나은 동구를 만들어달라는 엄중한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느낀다”며 “민선 9기에는 더 좋은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 당선인은 AI 중심 경제도시 동구 대전환을 추진한다.

그는 “AI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의 역동성을 깨우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의료데이터가 소득이 되고, 골목이 살아나는 도시, 창업·실증·투자가 이어지는 미래산업 중심 동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겠다”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안전 문제도 더욱 세심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 당선인은 동구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분산형 주차장 조성, 함께 학교, 공공기관, 종교시설 등과 연계한 공유주차대 확대, 차도 확대로 주차공간을 새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도입된 IoT 기반 스마트 주차안내 시스템도 넓혀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임택 당선인은 “선거 기간 함께 뛰어준



당원과 지지자, 선거운동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과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게, 더 가까이, 더 열심히 일하겠다”며 “동구의 변화를 이끌어 낸 능력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중심도시 동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주민의 삶 중심에 두는 새 기준 세울 것”

광주 첫 여성 기초단체장...AI·미래 산업 등 성장동력 육성

북구청장 신수정

광주 첫 여성 기초단체장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신수정 북구청장 당선인은 3일 “주민의 일상이 곧 자부심이 되는 도시, ‘주민의 일상이 곧 자부심’이 되는 도시, 지역의 기회가 내 삶의 기회로 확장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수정 당선인은 이날 당선 소감문을 통해 “위대한 북구 주민의 선택에 감사드리다”며 “이번 결과는 새로운 도약을 바라는 42만 주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받들겠다”고 전했다.

그는 “지방자치 31년 만에 광주지역 첫 여성 기초단체장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더욱 무겁게 생각하겠다”며 “이는 지역 정치가 더 넓어져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라 생각하며, 더 세심하게 듣고, 더 담대하게 결정으로 주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지방정부의 기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신 당선인은 광주 최초 여성 시의회 의장으로서 광역 예산과 도시의 큰 방향을 책임 있게 다뤄온 경험을 고스란히 북구에 녹여낼 방침이다.

그는 “20년 풀뿌리 지방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북구민의 삶과 북구의 미래를 위해 쏟겠다”며 “북구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시대의 중심도시로 세우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5급 3특 균형발전 철학과 민생회복의 약속을 가장 가까운 생활 현장에 힘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의 세금이 삶으로 돌아오고, 주민의 목소리가 행정의 중심이 되고, 주민주권도시를 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광주역과 원도심을 다시 깨워 도시 재생의 새 축을 세우고 AI·미래 산업을 북구의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며 스마트



통합돌봄과 AI 기반 안심 도시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신수정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주민 여러분께서 먹고사는 문제, 골목의 활력, 청년의 미래, 돌봄과 안전에 대한 절박한 바람을 전해줬다”며 “주민의 걱정을 행정의 과제로 삼고, 주민의 바람을 삶의 변화로 만드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주민 곁에서 듣고 배우는 구정 실천”

사람·산업·교통·문화 연결 ‘통합특별시 중심도시’ 건설

광산구청장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박병규 당선인이 “더 따뜻한 광산, 더 활력 있는 광산, 더 자랑스러운 광산을 만들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병규 당선인은 3일 당선 소감문을 통해 “보내주신 한 표, 한 표에는 더 나은 광산을 향한 희망과 기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중한 염원이 담겨 있다”며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더 큰 책임감과 더 낮은 자세로 광산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 경청소통 선거운동’을 선택해 확정기보다 주민의 목소리를, 일방적 주장보다 시민과의 대화를 소중히 여기고자 했다”며 “시장과 골목, 산업현장과 마을 곳곳에서 만난 주

민들의 말씀을 들었고, 이는 가장 큰 배움이자 광산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박 당선인은 현장에서 취합한 의견을 광산의 미래에 녹여낼 구상이다.

그는 “민선 9기 광산구는 경제와 소통, 참여와 협력을 구정의 핵심 가치로 삼겠다”며 “지자체 주신 분은 물론 다른 선택을 하신 분들의 뜻까지 소중히 받들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한 광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선 8기 동안 추진해 온 주민자치와 참여민주주의, 1·3·1·3 이웃 살림 정책,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 노동존중 정책, 촘촘한 복지와 돌봄체계, 청년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문화도시 정책, 미래발전계획, 살던 집 프로젝트 등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광산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를 준비하는 연결도시로 발전시켜 광주



와 전남을 잇는 중심도시로서 사람과 산업, 교통과 문화가 연결되는 상생발전의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박병규 당선인은 “선거 기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보내준 신뢰를 성과로 보답하겠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않고 늘 주민 곁에서 듣고 배우며 실천하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시민과 함께 목표 대전환 이루겠다”

“일자리·주차난 해결 등 성과로 평가받겠다”

목포시장 강성휘

목포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강성휘 당선인이 “목포를 바꾸고 다시 뛰게 하라는 시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 당선인은 3일 당선 소감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선택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당선은 강성휘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목포의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강 당선인은 오랜 기간 지역사회와 지방의회,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40여년 동안 목포에서 시민들과 함께 살아오며 지역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 왔다”며 “시의원과 도의원, 전남사회 서비스원장 등을 지내며 목포의 미래를

고민해 왔던 경험을 이제 시민을 위한 성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강 당선인은 “말보다 일로 평가받는 시장이 되겠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주차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의 기준은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체감도 높은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선거 과정에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 행정을 약속했다.

그는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뿐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한 시민들 역시 모두 목포의 소중한 시민”이라며 “이제는 목포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또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지역사회



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갈등보다 화합, 대립보다 상생을 중심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강 당선인은 “목포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시민들과 함께 목포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을 되찾아 다시 뛰는 도시, 미래를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나주를 통합시대 중심도시로 완성”

에너지특별시·혁신도시 완성·천만 관광도시 육성 약속

나주시장 윤병태

윤병태 나주시장 당선인이 “전남·광주 통합시대의 중심에서 나주의 더 큰 도약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당선인은 3일 당선 소감을 통해 “12만 나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시민들께서 검증된 일꾼인 저 윤병태에게 다시 한 번 나주의 미래를 맡겨주셨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재선의 의미를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사업을 완성하라는 시민들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민선 9기 나주시장으로 선택해 주신 것은 더 큰 나주의 변화와 성과를 완성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유능한 지방정부를 만들라는 시민 여러분의 뜻”이라며 “시민들이 보내주신 기대와 신뢰를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나주를 광역권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에는 전남·광주 통합시대의 중심에서 나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며 “2차 공공기관 집중 이전을 통해 빛가람혁신도시를 완성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산업 육성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인공지능 연구와 재생에너지, 차세대 전력망, 전력기재 산업을 연계해 국가 에너지산업 선도를 하는 “대한민국 에너지특별시 나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청사진도 내놓았다.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원도심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대하고, 500만 관광객 시대를 넘어 천만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소득이 보장되는 농업과 미래가 있는 농촌을 만들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활력 있는 경제도시를 조성하겠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꿈을 이루고 정착하는 도시, 어르신이 행복한 나주를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작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이 되겠다”며 “더 큰 성과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력”

농업·소상공인 지원 강화...청년 돌아오는 장성 약속

장성군수 김한중

김한중 장성군수 당선인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장성 대도약의 기회로 삼아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군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결과는 장성의 더 큰 발전을 위한 군민들의 기대와 명령이 담긴 소중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이 장성 발전의 새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당선인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거대한 메가시티 시대를 장성의 대전환을 이끌 결정적 계기로 만들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거대한 메가시티 시대를 장성의 대전환을 이끌 결정적 계기로 만들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거대한 메가시티 시대를 장성의 대전환을 이끌 결정적 계기로 만들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시와의 상생 협력 과정에서 장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 회복과 군민 삶의 질 향상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당선인은 “농업인의 시름을 덜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또 “어르신들이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청년들이 다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는 역동적인 장성을 만들겠다”며 “복지와 일자리,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 군수, 현장을 누비며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 군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책임 군수가 되겠다”며 “군민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선거 기간 함께한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총괄선거대책위원으로서 군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며 함께해 준 유성수 위원장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선거 과정에서 보내주신 군민들의 성원과 격려를 잊지 않고 군정에 온전히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장성=이항범 기자 hb6699@gwangnam.co.kr

